

[종합]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 광주일보·대한지리학회·전남대 공동 심포지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8일 나주문예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공동혁신도시의 바람직한 건설 방향과 지역민의 자세 등을 제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혁신 클러스터 구축...복합·자족형으로”

광주일보사와 대한지리학회, 전남대학교 공동 주최로 18일 오후 나주시 나주문예회관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700여명이 참가해 지역민들의

깊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단체간 합의에 의해 건설기로 한 공동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권영섭 위원〉 〈이정록 교수〉 〈이민원 교수〉

시 실제 이주기간 수와 이주인수, 간접 인구유발 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 2020년 인구는 4만명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에 개발면적은 250만평이 적당하며, 이것도 단계적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단체장과 지방이 먼저 변해야

이민원(광주대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석연구위원)·공동혁신도시 건설과 시민의 역할=국가균형을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수단은 역시 공공기관의 이전이다. 공공기관 이전 파급효과는 크다. 180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방의 고용증가가 13만3천명, 연간 생산유발액이 9조3천억원, 연간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4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성공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지방단체장과 지방이 먼저 변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건설에서 우리 지역이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지방에 실제로 공공기관들이 내려오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기업이 올만한 터전을 만들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삼아 이전기관들로부터 발전의 동력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구 4만명...개발면적 250만평 적당

지방적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 여건이 조성되는 도시 구축 ▲정보네트워크 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도시 인프라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동혁신도시가 순조롭게 건설되기 위해서는 인구 및 면적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광주시·전남도는 공동혁신도시 인구 규모(2020년 기준)는 계획인구를 5만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개발면적은 유보지를 포함해 약 380만평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인구추정

3명의 주제 발표자들은 공동혁신도시 건설 방향과 과제, 시민의 역할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공동혁신도시는 복합·자족형 신도시로 건립하되, 산·학·관·연 상호교류가 활발한 혁신클러스터 형태로 구축돼야 하며, 도시 건설에 앞서 광역교통망 구축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연구기관 이주 유도 전략 필요

이어 토론자들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타지역 혁신도시와의 차별성, 공동혁신도시의 지역내 파급효과 등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권영섭(국토연구원 연구위원)·혁신도시 건설과 국토균형발전=공동혁신도시의 기능확대와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선도 기업 및 기관 유치가 뒤따라야 한다. 지역의 혁신을 주도하고, 네트워크를 선도할 리더십을 가진 챔피언 기업을 유치·육성해 혁신도시의 추진력을 강화해야 한다. 해당 기술분야 선도기업이 유치될 경우 관련 기업의 동반 입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개발형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연구센터를 유치할 경우 연구센터와 관련된 분야의 지역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국적 기업중에서도 동아시아 지역에 R&D거점을 설치하고자 추진중인 기업들을 유치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한

“여수박람회 남북공동개최 제안 유감”

엑스포 지방유치위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2012년 세계박람회 지방유치위원회는 18일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의 여수박람회 남북공동개최 제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지방유치위원회 위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이날 성명에서 “BIE 공인 세계박람회는 지금까지 두개국이 공동개최한 사례가 없으며 최대한 한곳에 집합시켜 짧은 동선으로 관람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남북한 공동개최가 모로코, 폴란드 등 3~4개국과 치열한 유치경쟁에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 “5월로 예정된 BIE 유치신청과 내년 상반기 실사를 대비해 외교교섭을 결집해야 할 시점에 공동개최라는 불확실한 대안제시로 국론 분열과 혼란을 야기해 자칫 2010년 엑스포 유치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유치위원회는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는 중앙유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홍희기자 redplane@

저소득 장애인에 주치의 제도 도입

정부, 장애인 복지향상 대책 마련

2010년까지 일자리 10만개 창출도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문화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의료 제공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실시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중 세부 도입 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Able 2010 프로젝트’를 추진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 177만4천명 가운데 취업 가능 인원은 11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프로젝트를 따라 정부는 올해 5천개를

시작으로 내년 2만개, 2008년 4만개, 2009년 6만7천개에 이어 2010년에는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하고 6천억~7천억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대신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내년부터 차상위 계층의 중증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유료 요양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월 20만원씩 교환권을 제공, 본인 원하는 장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들이 보장을 구입할 경우 지금은 전액을 지불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80%를 되돌려 받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20%만 지불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곽성진기자 ksaj@

1천억 기부·세금문제 협의 차원인 듯

■론스타 최고위층 전격 방한 왜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과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18일 전격 방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원에서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를 소환키로 하는 등 의환은행 할당 매각 조사가 론스타로까지 확대되며 매각과 작업에 제동이 걸리자 유회원적 제스처를 통해 타협책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되고 있다.

론스타 미국 본사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런던발 대한항공 KE 908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엘리스 쇼트 부회장은 이날 중 일국할 예정이다.

쇼트 부회장은 지난달 의환은행 매각 각 우선협상자 선정 등을 통해 여러차례 언론에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금융계에서는 론스타가 지난 14일 제정경제부에 팩스를 보내 “의환은행 매각차의 가운데 1천억원을 한국에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7천250억원을 과세 논란이 끝날 때까지 국내 은행에 예치하며 “확실했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이를 공식 확인하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한한 그레이켄 회장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악화된 국민 여론을 무마시킬 만한 내용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진통을 겪고 있는 매각 작업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2003년 의환은행 매입에 대한 불발 의혹이 확산되며 계약 무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론스타측에서는 어떻게든 악화된 여론을 무마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곽내영교육학) featuring a list of courses like '국영수' and '영어수학'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Naeyoung Education Institute.

Advertisement for 'Hana Vocational College' (현대직업전문학교) listing various vocational courses and their fees.

Advertisement for 'Korea Public Personnel Management Service' (국가공인 물류관리사) and 'Real Estate Management' (주택관리사) with exam dates and fees.

Large advertisement for 'Gwangju Gosihakwon' (광주고시학원) promoting public service exam preparation with a 96.7% success rate and exam dates.

Advertisement for 'Hana Vocational College' (현대직업전문학교) detailing course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Kyeongnam University' (경남대학교) and 'Kyeongnam University Entrance Preparation' (김영대학면입학원) for exam preparation.